

연중 제14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제1독서 : 2역대 24, 18-22

제2독서 : 로마 5, 1-5

복 음 : 마태 10, 17-22

숲 정 이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 10, 22b)

강 련

소 리

신 앙 인?

이득재 신부 / 나운동 천주교회

우리의 신앙이 장식품이 아니고 예수님을 삶으로 따르기 위한 것이라면, 송구스럽지만 버리기 아까운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과감히 떠내 보낼 수 있는 아픈 사랑 안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네 삶을 거울을 나눈 나무의 생애에 비유했다.

나무가 거울을 나기 위해서는 아름답던 봄의 추억도, 여름의 푸르름에 대한 미련도, 자랑스런 가을의 열매와 단풍도 다 떨구어 내야만 한다. 그것도 부족해서 앙상한 가지에 겨우 남아 있던 수분도 버려야 하고 영양분도 모두 뿌리로 내려 보내어 온전히 자신을 비운 채 거울을 맞이해야 한다. 그래야만 추운 겨울 동안 얼지 않고 추위를 견디어 낼 수 있으며 봄이라고 하는 부활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축일을 보내는 오늘 그의 짧은 생애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히 그의 후배인 우리 사제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당시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구나 사제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 목숨까지도 하느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신앙적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애초부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제가 되기 위해 15세의 어린 나이에 먼 이국땅에 가서 술한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고, 어렵사리 신부가 되었지만 1년만에 사제생활을 형장에서 끝내야 했던 그의 짧은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오늘 복음 말씀처럼 신앙이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 갔지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이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만일 오늘날도 박해시대처럼 시련을 감수하고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신앙인으로써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전갈은 미워도

이런 우화가 있다. ‘어느날 전갈이 나를 건느려고 개구리에게 사정을 했다. 마음씨 착한 개구리는 거절하지 못하고 전갈을 등에 업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개구리의 등이 따끔했다. 전갈이 독침으로 개구리를 찌른 것이다. 죽어가는 개구리, 이래도 되느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전갈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그게 내 본성이라고.’

세상이 자꾸만 어수선히 진다. 특히 정치판이 더 그러하다. 여지껏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에서 우리는 그 징후를 본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데서 비롯되었다. 옛말 하나도 그른 게 없다.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백 섬 채우려고 한 섬을 탐내는 심보를 보는 듯 싶다. 그것도 소위 문민정부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슬픈 것이다.

지금은 무덤고 짜증나는 장마철이다. 그냥 지내기도 쉽지 않은데 물가마저 자꾸 오르고 있다. 자꾸만 개구리의 등을 찌른 전갈이 생각나는 연유는 무엇일까? 문민정부에 전갈이 있어서 세상이 이토록 답답하기만 한 것인가?

그래도 주저앉을 수는 없다. 일어서자. 이 7월에는 훌륭한 시장과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그래서 자름살 맞는 세상을 꾸며야 한다. ㉠

숲 정 이 산책



축! 사제서품경기대회 1등

2000년 대희년

그리스도인=선교사

박찬길 신부 / 사목국장

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다가오는 2000년대를 교회의 '새로운 봄'이라고 부르시면서 모든 신앙인들이 새로운 복음화에 투신할 것을 요청하신다. 교회는 무엇보다 선교적인 공동체이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복음선포 사명을 주신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마르 16, 15-16) 교회는 사도들에게 위임된 그리스도의 이 장엄한 명령을 세상 끝까지 실천해야 할 사명을 지닌다. 따라서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적인 공동체이며,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소명이다.

2.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즉 선교사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이유도 바로 교회의 복음 선포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로의 다음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1고린 9, 16) 사도 바울로의 이 말씀은 복음 선포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3. 교회는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복음에서 말하는 겨자씨처럼 교회는 큰 나무로 성장되었다. 그러나 교회에 위임된 구세주의 사명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 그리스도 강생 제2천년대가 마감되는 현재에도 전세계 인구의 60%가 넘는 32억 이상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거나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 선포 사명을 다시금 의식하여 새로운 복음화에 주력해야 한다.

4. 복음화는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 15)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화에 있어서 그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삼는 보편적인 진리이다. 따라서 구원의 진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교회는 그 초기부터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에 옮겨왔다. 지나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보편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장애에 부딪혔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와 헐박과 살해를 당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세계에, 모든 피조물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5.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자.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 곳을 중심으로 그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본당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가? 우리 각자의 신앙 생활도 반성해 보자. 나는 다른 이들에게 내가 믿는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가? 과연 몇 사람이나 내가 전해 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변화를 가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닌 선교사이다. 사도 바울로의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1고린 9, 16C)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새로운 복음화에 투신해야 할 것이다.

서 해 수 석

부안매화, 청송꽃들
꽃들가공, 좌대전문, 전시관매장

고영민(요셉)
서순금(테클라)

부안 전라주유소 앞
☎(0683) 81-1191

김희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최신물리치료기 도입, 입원실

김희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자리)
☎ 226-7600~1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퐁소) · 황진숙(안젤라)
☎ 88-7717~8

차량대여 및 임대전문 영업회사

(유) 국민렌트카

박일천(요한)

신역에서 진안선 중간 럭키아파트 앞
☎본사 : 242-4442, 242-4717~9
군산영업소 : (0654) 467-6578~9

장 간

성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의 생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덕과 모범으로 널리 공경을 받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성김대건 신부님도 바로 이런 경우로써 그는 103위 한국 교회의 성인들 가운데서 가장 널리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다.

그는 1821년 충청도 솔피에서 태어나 15세 때에 모방 신부님에 의하여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24세에 중국에서 신품성사를 받았다. 그후 곧바로 조선에 입국하여 서울과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사목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1846년 새남터에서 장렬한 순교로 세상을 마쳤다. 그는 25세라는 짧은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박해속에서도 모든 걸 극복하며 훌륭하게 사제직을 수행하며 복음 전파에 투신한 그의 열성을 들 수 있다. 이 땅에 복음 전파는 초기의 조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적 사명 이었다. 이러한 사명을 그는 최초의 성직자로서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가운데 온몸을 바쳐 힘을 기울인 것이다.

그의 선교 열망은 박해중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자들을 보살폈으며,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땅에 성직자 모시기와 굳건한 교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한국 천주교회의 신자수는 작년 말에 345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수치는 총인구 대비 7.69%를 차지한다. 매년 신자의 증가율은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지난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3%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새로운 결의, 환경, 시각을 가져야 함을 징표로 보여 준다. 우리 모두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이 땅의 성인 성녀들과 순교자들의 신앙과 전교의 열성을 본받고자 다짐하고, 하느님께 모든 걸 의탁하여 복음 전파에 장애되는 것들을 극복하며, 이 땅의 복음화에 다시 한 번 주력해 보자!(응)

교구 및 제 단체 소식

* '쑤정이' 성지개발 송금 : 국민은행 506-01-0189-049 천주교 유지재단
우체국 400010-0121211 천주교 유지재단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 관리국 ☎ 85-0041

1. 천호 피정 안내 : 7월13일~14일, 주제-피정을 통한 신앙인의 성숙, 강사-전달수 신부
7월20일~21일, 주제-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강사-유영봉 신부, 문의 73-6600
2. 성직자 묘지 미사 : 7월8일(월) 오전10시30분,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
3. 언론인, 방송인회 공소방문 : 7월14일(일) 오전9시 카톨릭센터
4. 기억할 사제 : 12일 김영구(베드로) 신부 12주기

* 축! 영명 : 11일(성베네딕도) 박성운, 김병운, 김용태, 현유복, 권이복, 유영도, 양경배, 정천봉, 이명재, 이영우 신부님
13일(성헨리코) 김영수 신부님

요심이 (1193) 김병오

최 전대통령이 왜 법정증언을 안고 있을까?

술씨에게서 막대한 돈을 받아 먹었거나?

술씨에게 약점을 잡혔거나. 말못할 불변을 당했기 때문이겠지?

법원에 왔다 갔다 할 교통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닐까...?

동정성모회 성소모임

- 때 : 매월 둘째주일 오후2시
- 장소 : 익산시 영등동 성모의원
- 문의 : 병원(0653)841-0714~5
수녀원(0653) 855-3783

전주 성식 노트사
(구 신일노트)

문구류, 사무용품, 질판 도소매
오 태 환(그 라 또)
김 해 춘(힐데가르다)
전일상호신용금고 옆
☎ (0652) 75-2401, 2502

코리아나 웨딩타운

정통클래식 고풍적 예식장
노 상 용(베드로)
전주역 광장앞(주차 150대)
예약문의 ☎241-1212

코리아나 부페

특급호텔식 정통 부페
20석~400석(대·소 연회석 완비)
회갑연, 칠순잔치, 단체모임 특별우대
노 상 용(베드로)
전주역 광장 앞(주차 150대)
예약문의 ☎241-4800~1

기아·아시아
딜러 영업소

송 수 환(다니엘)
이 영 자(아네스)
시트카바, 렌팅, 직회보장등 10여가지 선물,
신차분류유 중고차잠정 및 이전, 검사, 폐차대행
☎(0652)225-0045
(전화문의 환영)

선경 컴퓨터 타운

삼성, 샵모 및 국내의 모든 컴퓨터 총판
이 병 균(프란치스코)
정 미 선(글 라 라)
평화주공 1단지 입구
☎ (代) 231-2237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 부 실 82-9661 주임신부 범 영 배
F A X 82-9664 수 너 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 축! 세례 : 하느님의 자녀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환영식-오늘, 공식미사 후
- 1. 중·고 신앙학교 교리 : 7일, 14일, 학생미사 후, 교리실
- 2. 중·고 신앙학교(도보 성지순례) : 21일~23일
- 3. 초등부 신앙학교 : ①교리-22일~25일
②볼놀이-26일~27일
- * 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바람
- 4. 신앙학교를 위한 전조금 접수 : 사부실
- 5. 신앙학교를 위한 2차헌금 : 다음주일
- 6. 모임 : ①올드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②부녀회-10일 어머니미사 후
③장우회, 대건회-14일 공식미사 후
- 7. 금주 전례 : 새벽-중노3구역, 저녁-중노4구역
공식 안내-장우회, 해설-노광용, 독서-①이봉기 ②이옥희
신자들의 기도-송석창 부부, 봉헌-김영분 부부
- 8. 차주 전례 : 새벽-남노구역, 저녁-동진구역
공식 안내-대건회, 해설-진경숙, 독서-①이수원 ②분선자
신자들의 기도-김홍호 부부, 봉헌-김철분 부부
- 9. 금주 청소 : 중노 24, 23번
- 10. 차주 청소 : 중노 25, 26번

지난주 봉헌금 : 1,086,320원 교무금 : 1,719,500원
 2차헌금 : 453,480원

***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 부 실 86-4929 주임신부 이 증 원
수 너 원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 1.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 20일(토)~23일(화)
주제-함께 나누어요.
- 2. 중·고 여름 캠프 : 24일(수)~26일(금)
①주제-세상을 이기는 신앙
②장소-장수군 방화동 캠프촌
- 3. 금주 모임 : ①꾸리아-오늘 후 2시, 강당
②성심회-10일(수) 전 10시30분, 회합실
③자모회-11일(목) 레지오회합 후, 회합실
④올드레아-11일(목) 후 7시30분, 회합실
- 4. 차주 모임 : 프란치스코삼회-14일(일) 후 2시, 강당
- 5. 전례 안내 : ①금주 : 공식미사 해설-박병훈(엘리아)
독서-①유대희 ②민혜리
②차주 : 공식미사 해설-이주철(아교보)
독서-김현필 ②송영환
- 6. 청소 안내 : ①금주-사랑하움 어머니Pr.
②차주-사랑의 샘Pr.

지난주 봉헌금 : 1,141,750원 교무금 : 2,044,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 부 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수 너 원 86-3454 사목회장 박 상 기

- 1. 영세식 : 오늘 공식미사중
- 2. 오늘 :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 3. 저장을 마늘을 구입하실 분 : 사부실에 신청바람
- 4. 신문을 모아서 사부실에 내 주십시오(제활용)
- 5. 독서, 봉헌을 원하시는 분 : 14일까지 사부실에 신청바람
- 6. 중고등부 하계 수련회 : 25일~27일 장주 젊음의 집,
참가비-30,000원(개인 15,000원)
- 7. 금주 모임 : 성우회, 대건회-공식미사 후
- 8. 주간 모임 : ①구역분과회-9일(화) 전 10시
②안나회, 자모회-11일(목) 전 10시
③여성분과회-13일(토) 전 10시
- 9. 차주 모임 : ①요셉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후 2시
③장년회-저녁미사 후
- 10. 금주 전례 : 해설-최난희, 독서-박상기 부부
봉헌-영세자
- 11. 차주 전례 : 해설-허정식, 독서-오경진 부부
봉헌-한순애, 임봉래
- 12. 성당 청소 : 7월13일(토) 성모 성년Pr.

지난주 봉헌금 : 770,500원 교무금 : 1,760,500원
 2차헌금 : 346,75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 부 실 84-3222 주임신부 김 봉 회
보좌신부 82-7245 수 너 원 82-9234 보좌신부 송 영 진
F A X 82-6232 유 치 원 84-8347 사목회장 주 환

- 1. 금주 모임 : ①제육골라라 형제회-후 1시 30분,
②애덕의 모후 꾸리아-후 3시
③요셉회-후 6시 ④올드레아-후 8시
- 2. 주간 모임 : ①사라회-9일 전 11시
②나자렛회-9일 전 11시
③예루살렘회-10일 전 11시
④베아트레-10일 전 11시
⑤여성단체 임원 모임-10일 후 3시
⑥돈보스코-10일 후 7시 30분
⑦다비드회-13일 후 3시
- 3. 유아세례 : 13일 후 3시
- 4. 성심유치원 방학 : 12일
- 5. 액정 비전 상영 : "예수님의 발자취 제 4탄"
전 10시~10시30분, 후 9시~9시30분
장소-충연관, 대상-전신자(예비신자 포함)
- 6. 성마리아 꼬미시움 부단장 선출 : 이길용(엘리사벳) 수고하셨습니다.
- 7. 행렬을 쫓대 기증 : 김진희(수산나) 이심만원-감사합니다.
- 8. 차주 모임 :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 성지개발 헌금 정성껏 봉헌 바랍니다.
 지난주 봉헌금 : 2,285,540원 교무금 : 2,528,000원

*** 상 관** 주임신부 85-6654 사 부 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F A X 85-6652 수 너 원 85-6653 사목회장 감 덕 용

- 1. 금주 모임 : 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공식미사 후
- 2. 차주 모임 : ①안나회, 자모회-다음 주일
②장년회-13일(토) 후 8시, 성당
- 3. 장년회 आय회 : 17일(수)
- 4. 성우회 आय회 : 17일(수)
- 5.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 22일(월)~25일(금), 성당
- 6. 중·고등부 여름 신간학교 : 25일(목)~27일(토), 진안 백운
- 7. 꾸리실로 아의 올드레아 : 31일(수) 진안 윤일암
- 8. 지속적인 성체조배 : 4일(목) 저녁미사 후~금요일 미사 전
- 9. 성당 청소 : 금주-구세주의 모친Pr.
차주-신비로운 장미Pr.
- 10. 금주 전례 : 해설-우경숙, 독서-①강덕용 ②송정자
봉헌-이옥동 가정
- 11. 차주 전례 : 해설-김미남, 독서-①김완식 ②김갑자
봉헌-양만옥 가정

지난주 봉헌금 : 411,850원 교무금 : 629,000원

***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 너 원 232-5004 주임신부 이 상 삼
F A X 232-5003 사 부 실 232-5005 사목회장 강 상 근

- 1. 오늘 모임 : ①평화의 모후Cu.-후 2시 30분
②성지회-공식미사 후
- 2. 주간 모임 : 제대회-9일 전 10시
- 3. 차주 모임 : 천주의 모후Cu.-후 2시 30분
- 4. 풍납제 난장 떡거리 판매 순이익금 1,600만원을 성전 신축기금
으로 봉헌함
- 5. 성전신축을 위한 이발 봉사 : 다음 주일(14일) 많은 이용바람
* 성전 신축을 위한 주유권 구입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성전 신축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 : 신문지

지난주 봉헌금 : 1,783,550원 교무금 : 3,091,000원